





동네, 살아지다2

동네, 살아지다2 - 함께하는 마을





※ 이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의 '동네, 살아지다2-함께하는 마을' 사업의 결과 도록입니다.





동네, 살아지다2 - 함께하는 마을

문화원의 말

코로나-19라는 문명사적인 전환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 당연시하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뉴노멀¹⁾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문화를 통틀어 '생활문화'라고 합니다.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뜻하지요.²⁾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삶의 기준이 변함에 따라 그에 맞는 생활문화 재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삶의 시선을 지역, 생태, 공간 등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8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이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는 재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실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모인 것이 곧 지역의 역사와 문화임을 인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잊히는 동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삶의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담아내었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정형서

1)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뜻하는 말. 네이버, "뉴노멀", (2021.10.)

2) 네이버, "생활문화", (2021.10)

‘동네, 살아지다2’에 대하여

2019년 ‘동네,살아지다-미추홀구 주안3동 재개발지역의 기억과 기록’에서는 재개발 예정지를 기록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면, 2021년 ‘동네,살아지다2-함께하는 마을’은 물리적인 사라짐이 아닌 ‘동네’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어디 살아?”라고 물었을 때 〇〇뷰, 미추홀〇〇〇 등 아파트 브랜드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적이 되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단지 자체가 하나의 동네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무의식중 ‘아파트 단지=우리 동네’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동네’는 익숙하고 친근한 공간이며,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동네는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으로서 공존하기도 한다.

어느 곳이든 동네가 존재하고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시간을 많이 흘러보낸 세대가 되어버린다. 형태로써 동네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감정으로서 동네는 시간의 흐름을 내재하고 있는 작은 풀에게서도 발견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사라지는 공간이나 건물뿐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이야기이다.

이 책에 담긴 작품들은 오랜 시간을 살아온 동네에 시선을 두고 느낀 소소한 감정들을 글과 그림을 통해 표현하였다. 집 앞을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발걸음을 쫓아오며 동네를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본 도록에 사용 된 이미지는 '동네,살아지다2' 참여자들이 직접 찍거나 그린 작품입니다.
단, 동네의 일상적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 이미지는 편집되거나 재구성되었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동네, 기억하다 ————— 9

동네, 함께살다 ————— 35

동네, 이야기 나누다 ————— 51

- 참여자 후기

- 감사후기

- 맺음말

- 온라인에서 우리 동네 만나기





동네, 기억하다

학익시장, 학익재개발 지역을 돌아보며 기록한 사진들
: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모인 것이 곧 지역의 역사와 문화임을 인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잊히는 동네의 모습을 기록





학익4구역 재개발예정지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에서 출발하여,
10여분 남짓 걸다보면 보이는 풍경들.
골목, 담벼락, 무성히 자란 풀, 그리고 빈집.
2021년 9월.



1 종합시장

사무실 83-348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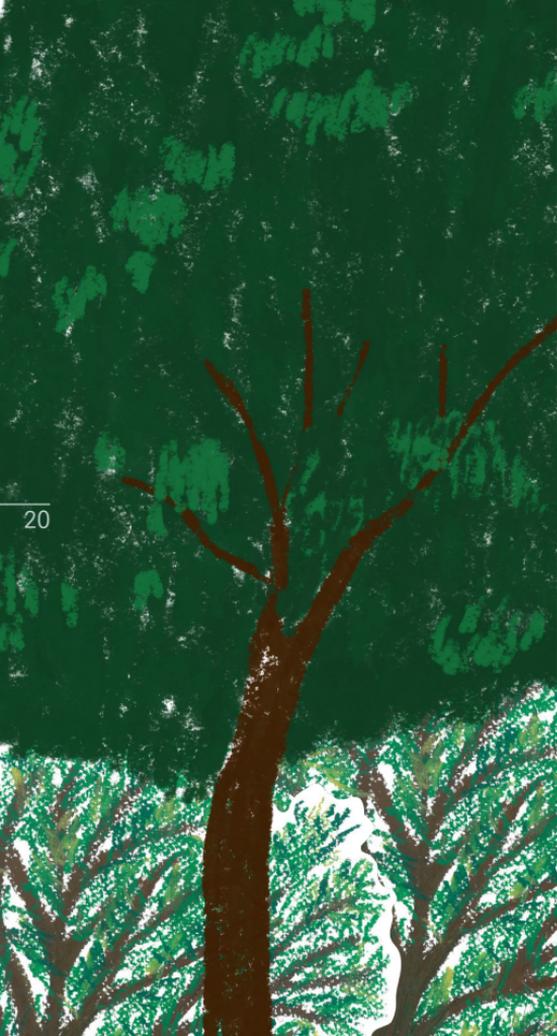
1962년 개설 된 학익종합시장.

이제는 '종합' 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10여개의 점포만이 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익시장에서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500여미터의 골목길.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였던

‘숙이네 슈퍼’는

곧 사라지거나 혹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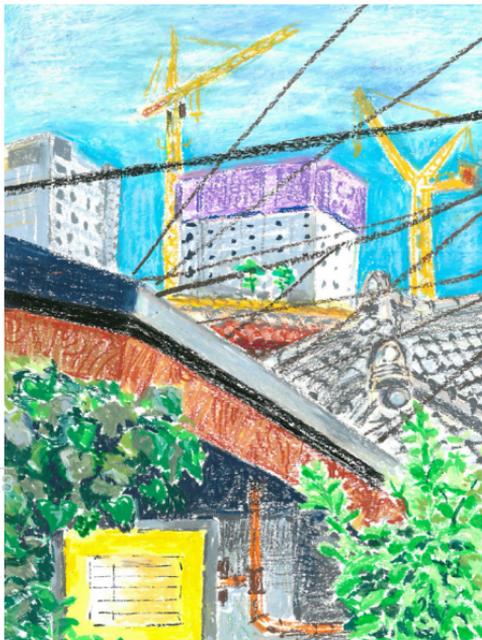




익숙하지만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들







공존 (共存) : 사라질 것과 살아질 것







30°

중문



합시장

3T

Caf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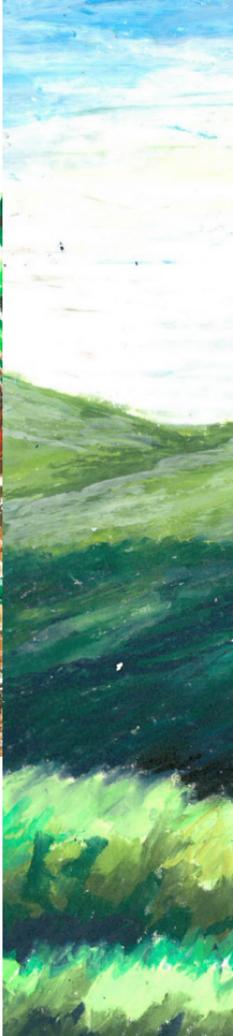
함익동







동네의
애정하는 공간들





안녕, 학익동 사람들
그동안 고마웠어

대성

대성실업(주)

스파

가스보일러

부개투우침 305-2246

식물이라는 인간하고 다른 종들을 어떻게 관계 맺음 해야 되고 가꾼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물을 가꾸기도 하고 동물을 가까이 키우기도 하지만 다른 종들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그를 위해서 공부야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문학 강사 최금예 인터뷰내용>

나에게 세상은 아름다워 비친 앞방으로
한 뿔에 저피피김에 살아 붙여
발아 뒤집어 그친 꽃이 위하시야만
무병 장과 산약은 남은 삼오리 막느니라
와 다름을 용서하.

답답함이 들수록 후속이 바뀔 내린
그때까지 버티고 싶어하니 어찌어찌하

동네, 함께살다

동네 사람들과 생물 친구들
: 삶의 시선을 지역, 생태, 공간 등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일상, 생활문화를 재정립



현이 큰애미어
이제껏 풀싸 나의 알근
구부 섰을 섰었다.

커먼 지니라 기뻐하든
누군데 내사 새싹이 싹
기다려 주니라 조르빌로 보하
진기찬과 잘게는 혼이여
영미의 앞이 주조

살판도 잡아 주고
정미가 가는반을 애원하 하렸단
어느 날의 일수

살풀을 풀꽃 원시되고 러한 것만 다른
다녀와서 못나

가는 줄기가 햇살의 뜨거움의 증거고...
물어간 정한애미 꽃가 더러워
스스로 격려하미

일어나 기어올라가거 ...



어느날은 아열기
어섯을 건넌
꽃을 필의 내선과

일어나 더러워
내게를 왔단
조르빌로 보하

영미의 앞이 주조
살판도 잡아 주고
정미가 가는반을 애원하 하렸단

어느 날의 일수
살풀을 풀꽃 원시되고 러한 것만 다른
다녀와서 못나

가는 줄기가 햇살의 뜨거움의 증거고...
물어간 정한애미 꽃가 더러워
스스로 격려하미

일어나 기어올라가거 ...

2021. 8. 10



살판기 퇴각막 우뚝

6월 수업을 시작한 뒤부터
이 로고의 살판기 퇴각막을
누는거라 함께 시운의 온전한 돌고
중요한 식물로 10개월 내내의 온전한
풍요 보인 한이이 조근, 베풀려
나의 마음을 사살하는 것도 살판기
원한다.

고칠 강수를 풀기위해만 나 스스로
어떤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고칠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고칠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8월 10일



살판기 퇴각막 우뚝
6월 수업을 시작한 뒤부터
이 로고의 살판기 퇴각막을
누는거라 함께 시운의 온전한 돌고
중요한 식물로 10개월 내내의 온전한
풍요 보인 한이이 조근, 베풀려
나의 마음을 사살하는 것도 살판기
원한다.



살판기 퇴각막 우뚝
6월 수업을 시작한 뒤부터
이 로고의 살판기 퇴각막을
누는거라 함께 시운의 온전한 돌고
중요한 식물로 10개월 내내의 온전한
풍요 보인 한이이 조근, 베풀려
나의 마음을 사살하는 것도 살판기
원한다.

9/10

9/10 무화과잎에 실은 뒤집어쓰기 잘 아십니까
 유전자로 새잎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새잎을 기르
 는 것이 아니라, 한층의 두꺼운 새잎이 나오기 쉽도록 돕는
 유전자의 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잎이 나오면 — 그
 새잎은 다시 다른 가지에서 새 잎이 나오게 됩니다.
 새잎은 새잎이 나오기 전에 새잎을 기르며만 살아
 새잎은 새잎이 나오기 전에 새잎을 기르며만 살아



연홍진개 실은
 과꽃 관동기
 큰꽃 실생법에서 주된
 모본입니다
 포진, 고삼
 유육이 약하여 물고
 대다 위에서 자라나며...
 관동기에서 자라나며...
 관동기에서 자라나며...
 관동기에서 자라나며...
 관동기에서 자라나며...



과꽃

2011. 9. 30

9/11

아스피라나스가 잘 자라는 것은 가을에 초봄 전에
 아스피라나스가 잘 자라는 것은 가을에 초봄 전에
 아스피라나스가 잘 자라는 것은 가을에 초봄 전에
 아스피라나스가 잘 자라는 것은 가을에 초봄 전에



▶ 아스피라나스
 아스피라나스
 ▶ 아스피라나스

9/11

▶ 아스피라나스
 아스피라나스
 (10cm ~ 15cm)
 잘 자라는 것이다.

2021. 6. 29. 화

(파란테 과반해 ~
남아도 두개 남는다)



자라게를 사육은 (양호함을 동화할)
아 ~ 가버렸지만 너의 이심전은 어디여...

④ 오렌지보다 늦게 심은 오렌지 씨앗이 어디에
있음 ~ 우연찮게 1번다 떨어졌어 더 큰데 커
못하다 ~~~~~ !!
우의 글자보다는 둘째 셋째 더 굵은 ...
아 ~ 평범하면 (???)

2021. 6. 29. 수

(겉줄은 생살남...)
오렌지 껍질 벗겨서...



오렌지 씨앗이 생살을

2021. 6. 29. 일



두번째 이심전 배물 ~
다유 극된다.
아직 요요한 사육이 ...

< 테라라지 오렌지 1개, 오렌지 1개 >

2021. 6. 29. 화



다른 해방에 문구함을 준다야
그런 ~ 광충화가 해어지지
세면할 것되었다.
약올 아 가슴이 아프다.
마야야 마다 서림하게 된
산과지 못했구나 ㅋㅋ.
< 08 18 (약 16.5) >

대체 두어십 다 무진명일
날간개 해서 영관지 어스
꼭들성강 가버려...



305
28

2021. 7. 28. 수

다들여 받기
(죽이다. 타당. 마유모로 아미)
↳ 내가 타당 안들어 하는 아
씨인 ~~~~~
따는 별다른 알파라게 할라게 쓰다 &



질녀서 표관자가 저편
있었다.
죽이다 시유는 무진기 8월

↳ 89 대역에 지른 갖게 같은게
있어서 이차개한 장구일 ~~~~
정말여다 ~~~~~ 울음 아껴줘서 그러
약물이 약국일 따.
문호준이나 사귀어주라.



종이 환화 식물로 주는
아래가 여과화
대리 식물로
드디어서 회복은 생살은
수레를 들은것 없게
갈 면해서
최후 복지는 걸어서 게
생각보다 조금 씩스 플린다
무엇보다 한 문지 식물이다
겨우겨우 인 무모사하리 물이
예뻐서 테라라지 부분 만일 &

2021. 8. 11

1. 식물을 가꾸는 것
우리집 정원 만들기



이틀전 아침까지 한류의 건강함으로
기분 연수를 거네다 해바라기
오늘 저녁에 만나뵈니 좋았기이다.
지리대에 지랭하다 몹이 적어
즐기도 밝은 생각 있었다.

부일래디 들쭉의 지랭함과 함께
짚가 러전한 아쉬움이 마음 가득 밀려왔다.
돌솥의 무지에 의하여 해바라기가 겨울은
겨울일은 무엇이었을까?

여정만 간직했던 소망과 달리
해바라기는 다시 회복하는 힘을 잃고
생각을 다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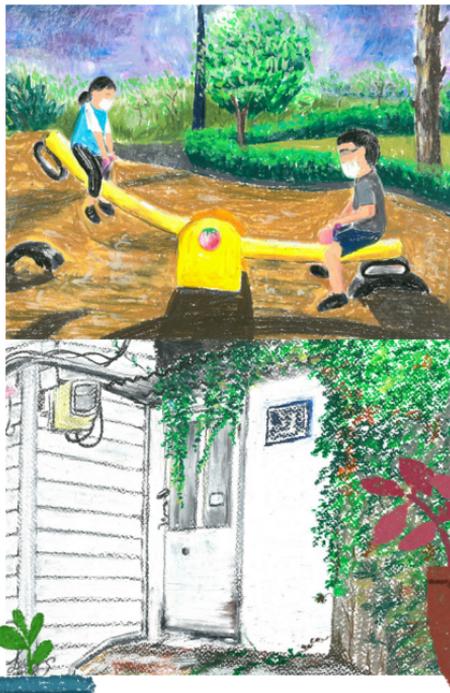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 손길에서 머물러온
인연이 감사하여 식물의 습관과 들쭉이 대한
공약은 좀 해바라기다. 2021. 7. 7



우리 집에서
식물을 가꾸기에 적당한.
담벼락 밑 화단이다

대지의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낙낙한 햇살과 바람이 오가는 곳
그 공간에 아름다운 수족 정원을
만들고 싶다





우리 삶의 공간에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이 함께 한다.



개똥
치우고
주세요.



50













동네, 이야기 나누다

참여자&강사 후기

식물의 언어로 만나는 우리동네
-서정혜

‘식물의 언어로 만나는 우리동네’ 수업을 5개월 듣는 동안 6.7.8.9.10 숫자와 함께 계절이 변하고, 대면과 비대면 상황이 반복되고, 식물에서 사람으로 더 나아가 동네로 확장되는 사고의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19 시대의 긴 피로함과 우울함이 식물을 통해 정화되어지고 새로운 나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학산문화원과 6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한 내 삶은 소중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고마운나의친구다.

또다시 널 만날 시간을 기다리며...

56 무심히 지나쳐 다니던 길가 그 한켠 돌틈 사이 식물들과 눈을 마주치고 느끼고 미소 짓는 나를 발견한다. 옆에 있던 아들도 따라본다. 우린 이야기를 나눈다. 아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흐른다. 한동안 우리의 발걸음은 더뎠을 것이고 수다는 길어지겠지...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때론 안타까워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던 그 소중한 시간이 어느듯 기억의 책장 사이로.

그리다만나는 우리동네

- 이혜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화요일 저녁때 프로그램이었던 오일 파스텔화가 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요즘 핫한 그림재료인 오일 파스텔화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차시 한 차시 마을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가지 추억도 함께 나누고, 한적한 골목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또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사라져가는 마을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갈 곳들이 점점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요모조모를 그림으로 남겨 둔다는 것이 또한 마을의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고

보람되었습니다.

언제나 마을의 모습은 바뀌어 가겠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다른 의미들을 찾고 추억을 남기며 나이를 먹어가겠지요. 문화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주민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함께 느끼고 전달하는 장이 열리기를 소원해봅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여러 모습으로 함께하는 마을 주민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언어로 만난 우리동네
-주강사 김태분

식물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고 내가 원예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

식물 인문학은 원예와 도시농업과 마을이라는 분야를 고루 이해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풀어 나가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마을을 산책 하면서 집과 식물에 대해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고 마을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답게 느껴졌고 비대면 ZOOM 수업을 하면서 수업 중간 우리집 식물닥터 느낌으로 수업한 것들도 새로운 수업의 한 방향으로 제시 되기도 하였다.

이해하기 힘든 식물 인문학이 아닌 너와 나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식물인문학 수업을 함께 진행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다만나는 우리동네

-주강사 김현주

동네에서 살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여기를 기억한다는 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놀마주하는 질문이다.

촌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 모두를 보낸 나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이 내 아이의 어린 시절 풍경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조금 서글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땅을 딛고 서서 하루를 견디어 내는 우리 모두의, 매일의, 보통의 추억이 눈물겹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대신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억하는 편이 옳다 여긴다.

오일파스텔은 포근하고 투실투실하다. 뽑아내는 선은 예리하지 못해 도시 마냥 세련된 날카로움도 없다. 조화롭게 섞이는

듯 싶어도 이내 곧 덮여선 사라져 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본래의 색이 아주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래에서 몽근하고 든든하게 다른 색들을 받치는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도심의 모습은 꼭 오일파스텔로 그린 그림들을 닮았다.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로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사람들과 더 오래된 나머지 것들이 가득하다. 덮여도 온전하게 덮여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닌 것들 말이다.

조금 더 서글퍼질 도시의 풍경을, 동네의 오늘을, 매일의 사람들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수 없이 반복하며 변화하고 진화해간다. 사람의 삶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비로소 '인생'을 완성하기에 이르고, 그 여정으로서의 인생을 우리는 '살다'라고 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지게'된다. 사람이 모여 살아온 곳, '동네'도 이러한 과정을 겪고 그래서 우리는 곧 사라질 동네에 대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기억과 기록을 통해 옛 기억으로 사라져 간, 사라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삶의 단초를 여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예술 매일 전시

하루에 한 작품 온라인 전시
전시 바로 보러가기 >>>>>



*본 전시는 지역문화진흥원 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발행일 2021.10.31

발행처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획·제작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함께한 사람들 강현정, 김명희, 김행화, 문숙희, 박민숙, 방세영, 서정혜, 서진희, 송순심, 신영란, 윤다미,
윤춘화, 이혜숙, 장운정, 전상미, 조혜영, 한광욱 그리고 김태분, 김현주, 최금예

디자인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26, 학산생활문화센터

전화 032)866-3993

홈페이지 <https://www.haksanculture.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chhaksan>

이 책은 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 및 글은 발행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968891-9-7

